제5대자랑스러운건설업인사관리자

최 홍 길 포스코건설 인력개발실 상무

"건설업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사람입니다"

"지난3년간건설업인사관리자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낯선 건설업계의 인사 관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랑스러운 건설업 인사 관리자 로뽑아준 데대해 제나름으로는건설업인사관리자로비로소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11월 25일최홍길상무는전국건설업인사관리자대회에서박태원두산건설 전무, 김정호SK건설 상무 등과 함께 제5대자랑스러운건설업인사관리자로추대되었다. 그는사실3년전만하더라도건설업과는무관한인사관리전문가였다. 지난 1981년포스코에입사한그는제조분야에서만 25여 년 동안 인사 기획, 능력 개발 및육성등을수행하였다.

하지만최고의HR 전문가였지만막상건설업은 제조업과 다른점이많았다고 한다. "건설기업인 포스코건설은 제조업체와는 달리 고정 설비가 없어서 프로젝트가 발생하면필요한인력이모여서일을하고성과를내는곳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관건이었습니다. 사업의 성패와 손익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셈이지요."

영업을통해공사를수주하는것도, 그리고그공사를시행하는것도사람이어서제조업보다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컸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인사관리 업무를 하면서 '건설업경쟁력의원천은결국사람'이라는 것을깨달았다고한다.

최홍길 상무는 회사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동일한목표를향해톱니바퀴처럼맞물려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때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HR 분야역시 단순히 사람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HR전략을입안하고실행함으로써전체경영성과향상에기여할수있어야 한다고설명했다." 인력개발부서는인사와 노무, 교육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곳에근무하는사람들은직원들위에군림한다는생각을버리고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아낌없이지원해주어야합니다."

그는 포스코건설의 인력 개발 방향이 조직의변화와혁신을전방위적측면에서유도하고, 회사의 경영 목표와 비전을 실현할 수있는핵심인재를확보 · 육성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는 스마트한글로벌인재 육성에주안점을두고 있다. 인재 육성 부분과 관련해 최홍길 상무는특히회사의핵심기능을수행하는 계층인SM(Site Manager) 양성과정에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SM은현장소장을가리키는말로미래의현장소장들을직접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외부 위탁 과정으로 운영하다가 2004년부터 자체교육을통한자격인증과정으로전환했습니다. 양성 교육 대상자는 기본 자질이 우수하고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중 인력개발부서에서각종평가를종합하여 선발합니다. 교육과정은전문지식과리더십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되는데총7개월간, 매월3박4일의집합교육이6차에 걸쳐실시됩니다."

최홍길상무는SM 양성과정은교육평가가 매우 엄격하여 매월 실시되는 집합 교육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다음 과정에 입과할수있으며, 교육전과정을수료한직원만이SM으로보임될수있는자격을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성장을기대하기는어렵다고판단해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왔다고 밝힌 최홍길 상무는 이러한 경영 환경에 발맞춰 글로벌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인재를확보 · 육성하는것이가장시급하고중요한과제라고말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